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력'

과기부 부지 공모 앞두고 TF 가동 전문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선도

올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가 관계부처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문적 지지를 얻어내는 한편, 유치 전담팀(TF)을 가동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 유치 공감대 확보, 전문인력 양성 협약, 산업 생태계 조성 기획 등 내실을 착실히 다졌다.

초강력 레이저 저변 확대와 전문가 지지 확보를 위해 한국광학학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 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7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9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국회토론회'를 열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과 전문가, 기업계 인사 등 150여 명에게 '첨단 과학기술의 히든카드'로서 초강력 레이저의 필요성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최적지 전남'을 알렸다.

12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레이저 산업 국가 거점 도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레이저 연구 고급·속연 인력 및 레이저 산업 역군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단, 한동대,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7개 대학 및 1개 기관과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6월 21일 ▲레이저 부품 국산화 품목 발굴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획을 내용으로 하는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제2차 국회토론회 개최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분위기를 고조해 적극 나서고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며, 주요 기업 및 국책기관과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등 '레이저 연구시설 최적지로서 전남'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질 방침이다.

김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고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전 도청 정철실에서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재난대책회의를 마친 뒤 실국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새벽까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전남도제공>

강기정 광주시장, "헌법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담기 바란다"

제헌절 맞아 헌법 전문수록 강조 국회의원 200명 이상 서명운동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기소개서인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7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헌법은 얼핏 시민 삶과 무관해 보이기도 하지만, 헌법과 법체계는 발 딛는 모든 곳에 놓여있다"며 "헌법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열도록 노력해야 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지지

않고 해야 할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본부 구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던 강 시장은 국회의원 서명을 우선으로 두고 여야의원을 아우르는 '추진 대표단'부터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실무적 논의에서 거대한 기구를 꾸리는 것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전남, 여야를 넘어선 추진 대표단 구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대표단 구성과 함께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실무단

을 꾸려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 시장은 최근 폭우피해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려 많은 분의 명복을 빌다"며 "피해가 없도록 더 경계하고 살피고, 다른 지역의 피해에도 행정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폭우·폭염·가뭄 등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도, 적절히 대응 못 해 피해를 키운 것도, 해결해야 할 것(주체)도 사람"이라며 "당장 폭우에 잘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긴 안목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고감한 정책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보성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 25호 민간정원

전남도, 녹차 미로정원 심미적 가치·차 연계 관광 연계성 우수

전남도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 25호 민간정원인 보성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을 등록했다.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은 주제정원인 녹차 미로정원의 심미적 가치가 우수하고 보성의 차와 관광 연계성이 뛰어나 정원전문가 현장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독특한 정원 이름인 '골망태'는 발국식을 담은 그릇과 부유함을 상징한다. 젊은 시절 요리사로 일하며 20년 넘게 정원을 조성했던 정원주 신탁원 씨의 인생철학을 담아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보성을 초입에 자리한 정원은 1만6500㎡의 차밭과 정원주가 직접 설계한 버섯 모양의 카페, 펜션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나무 한 그루, 건물 하나 정원주의 손길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정원은 3만3907㎡ 규모

로 녹차미로정원, 수선화정원, 수국정원의 3가지 주제정원과 주차장, 화장실, 카페, 임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녹차미로정원은 2004년 차 씨앗으로 심어 조성했다. 관람객이 직접 미로 체험을 할 수 있고 근사한 사진 촬영 명소 역할까지 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오랜 기간 가꾸어 지역의 우수 산림자원이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생활 속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신한 민간정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등록된 민간정원에 방문객 편의 시설 확충사업으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고흥 '힐링파크 숲섬섬'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현재 총 25개의 민간정원을 등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국가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다.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높은 국가' 상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NYT는 "나이 든 국가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00만명에서 2050년 2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에서 1800만명으로 급증하고, 젊은이(15세 미만)는 58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전 도청 정철실에서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재난대책회의를 마친 뒤 실국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새벽까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지사, 유관기관 협력 호우 현장 대응 강화

산사태·독 봉고 등 선제 대처 당부...여수 피해 현장도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실국별 대책회의를 열어 시군·소방·경찰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를 지시하고, 호우 피해 노인복지시설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실국별 대책회의에서 "각종 재난정보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부단체장 이상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선제적 대비 조치 및 상시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사태, 하천 월류나 독 봉고 등에 대비해 피해 위험지역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담당 공무원과 대피 장소 등을 미리 배치·지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 우수 수해피해 사례를 거울삼아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대피는 경찰 등 유관 기

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로 피해를 입은 여수 노인요양시설 하안곶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피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핀 후 구호품을 전달했다.

하안곶은 지난 15일부터 260.5mm의 강우가 쏟아진 여수 돌산에 위치한 곳으로, 16일 오후 3시 30분경 뒷산 산사태로 토사가 유실돼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김 지사는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18일까지 강우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지역 주변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 복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연장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17일 내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원, 국민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하나은행이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농

협은행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 줄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정촌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령리 바닷가매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전복순(471023-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동구 참판로 22(계림동)
- 피상속인 양 전복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3694호로 신청하여 2023년 7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7월 18일
- 상속인 : 김용희(730416-XXXXXX)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28, 402호(계림동)
- 신고기간 : 2023. 7. 18. ~ 2023. 9. 2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용희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지어온 길 71년 **先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레노**

사찰 (금) 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108 돌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